

# 高度成長의 背景과 메카니즘

金 宗 炫\*

<目 次>

I. 序 言  
 II. 高度成長의 背景  
 III. 高度成長의 메카니즘  
 IV. 結 語

## I. 序 言

第2次大戰後 日本經濟의 成長過程에 있어서 1955年에서 1973年에 이르는 時期는 「高度成長期」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19年에 걸친 이 時期에 日本經濟는 年平均 9.8%에 달하는 높은 成長을 지속하였다(〈表 1〉 참조). 이러한 높은 成長은 日本經濟 자체로서도 過去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으며 國際的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 期間에 있어서의 日本의 經濟成長率은 西獨(5.9%)과 프랑스(5.2%)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었으며, 美國

〈表 1〉 經濟成長率

(單位: %)

年度	經濟成長率		民間設備投資 對前年增加率	年度	經濟成長率		民間設備投資 對前年增加率
	名 目	實 質			名 目	實 質	
1954	10.7	5.8	4.3	1965	10.5	5.1	△6.4
1955	10.1	8.8	△3.2	1966	15.2	9.8	11.6
1956	12.8	7.3	39.0	1967	18.3	12.9	27.3
1957	14.0	7.5	25.1	1968	18.4	13.4	27.5
1958	4.0	5.6	△4.7	1969	14.6	10.7	21.1
1959	12.2	8.9	16.9	1970	18.5	10.9	14.7
1960	19.8	13.3	40.9	1971	12.1	7.4	4.5
1961	23.5	14.5	36.8	1972	14.3	9.1	5.6
1962	10.9	7.0	3.4	1973	22.5	9.8	18.5
1963	15.4	10.5	5.3	1974	19.1	△1.3	△10.8
1964	18.1	13.1	20.0				

資料: 安藤良雄 編(1979, p.164).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3.5%)과 英國(3.0%)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長期間에 걸친 高度成長이 經濟의 계속적인 확대만이 아니라 景氣後退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高度成長期에도 日本經濟는 4회에 걸친 不況(1957~58年, 1962年, 1965年, 1970年)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 時期의 不況은 景氣의 過熱을 막고 다음의 成長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였지 高度成長의 基調를 흔들리게 한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의미에서 不況期는 成長經濟의 조절기였고 그 期間에도 成長率은 상당히 높은 水準에 있었다.

高度成長期는 全體로서 하나의 時期이면서도, 高度成長이 進展되는 過程에서 成長의 條件과 패턴은 變化하였다. 따라서 高度成長期는 일반적으로 「1965年 不況」을 사이에 두고 前-後의 2時期로 區分되고 있으며, 學者에 따라서는 「轉型期」(1962~65年)를 區別하여 3時期로 區分하는 경우도 있다.<sup>(1)</sup>

「1965年 不況」이전의 日本經濟에 있어서 成長을 制約한 基本的 條件은 外貨保有高의 上限(「天井」)이었다. 즉 投資擴大—輸入增大—生産增大라는 擴大好況局面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外貨保有의 限界에 부딪쳐 계속적인 成長이 制約되고, 긴축정책이 도입되어 投資抑制—輸入減少—生産減少—輸出增大라는 縮小—不況局面이 나타나고 이 局面에서 이루어지는 外貨保有의 증대를 토대로 다음의 擴大局面이 나타났다. 그러나 「1965年 不況」 이후 이러한 制約條件은 사라지게 되었다.<sup>(2)</sup> 즉 輸出의 지속적인 急伸長으로 國際收支黑字基調가 定着되고 黑字幅이 크게 擴大됨으로써 外貨保有의 「天井」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成長條件의 變化속에서도 設備投資의 擴大와 技術革新이 두드러지게 進展되면서, 高度成長이 이루어졌다. 한편 成長패턴도 變化하고 있었다. 高度成長의 최초의 局面인 1955~61년의 成長패턴은 「設備投資主導型 成長」이었다.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技術革新投資가 관련되는 諸產業部門에 광범한 波及效果를 미쳐 「投資가 投資를 부른다」는 投資붐이 나타나면서 高度成長이 이루어졌다. 「轉型期」(1962~65年)는 「財政 및 消費需要主導型 成長」<sup>(3)</sup> (『經濟白書』)이 이루어질 것으로 認識되는 가운데 民間設備投資의 增加率은 鉅

(1) 宮下武平 編(1971, pp.16-7).

(2) 山崎隆三(1985, pp.14-7)은 高度成長過程을 戰前부터 계속되어온 「入超=外資依存構造」에서 「出超=資本輸出構造」에의 轉化로 總括認識하고 있다.

(3) 「轉型期論爭」은 1962年の 不況을 단순한 景氣下降局面이나, 아니면 構造의 變化를 포함한 不況이나라는 觀點에서 이루진 것이다(經濟企劃廳(1962)). 論者에 따라서는 그것을 日本經濟가 「超過需要—供給不足」에서 「需要不足—供給過剩」으로, 「勞動力過剩—資本不足」에서 「資本過剩—勞動力不足」으로, 「高度成長」에서 「安定成長」으로 體制轉換하는 時期라고 인식하였다(篠原三代平(1965, pp.182-6; 1964, pp.125-31)참조). 이 時期의 論爭에 대해서는 穴戶壽雄(1977, pp.8-10; 1965, pp.102-110)참조.

化되는 한편 輸出・政府財政支出 및 個人消費의 增大가 成長을 主導하였다. 高度成長의 마지막 局面인 1966~73年の 成長패턴은 輸出과 個人消費가 增大하고 國債發行에 따른 政府財政支出이 擴大되는 속에서 民間設備投資가 擴大되어 經濟成長이 이루어졌다.

長期間에 걸친 高度成長을 통해서 日本經濟는 量的・質的으로 高度의 發展段階에 도달하게 되었다. 경쟁적으로 推進된 民間設備投資와 重化學工業部門을 중심으로 광범하게 進진된 技術革新으로 工業化가 일층 확대・심화되었다. 그속에서 經濟規模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1人當所得도 증가하여 生活이 다양화되고 高度化되었다. 그와 함께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日本經濟의 地位도 높아지게 되었다. 國際貿易 및 資本投資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日本經濟는 國際經濟에 큰 영향을 주는 地位에 도달하게 되었다.

高度成長이 인플레이・公害・環境破壞・資源枯渴・國際的 貿易摩擦 등의 諸問題를 발생시켰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문제의 확대・심화가 高度成長의 지속을 困難하게하고 成長基調를 低成長으로 轉換하게 하는 基本的 條件이 되었다. 이러한 否定的・消極的 側面이 있으면서도 高度成長이 日本經濟의 現在水準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契機가 되었다는 것을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戰後의 混亂을 극복하고 復興한 日本經濟가 오늘날의 高度의 發展段階에 도달하게 된 것은 高度成長過程을 거쳐서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高度成長期는 日本經濟의 「歷史的 勃興期」<sup>(4)</sup>이며, 日本의 現代經濟史에 있어서 가장 力動的이었던 時期로 評價될 수 있을 것이다.

高度成長期가 現代日本經濟史에서 중요한 時期였던 만큼, 이에 대해서는 日本學者들에 의해서 여러가지 視角에서 많은 研究가 이루어져 왔다.<sup>(5)</sup> 뿐만 아니라,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에 대해서는 歐美諸國의 學者들에 의해서도 많은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關心은 높다.<sup>(6)</sup>

本稿는 既存의 研究成果위에서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이 이루어지게 된 背景과 메카니즘을 考察한 것이다. 高度成長의 背景으로 國際的으로는 이 時期의 世界資本主義體制의 性格과 그속에서의 世界經濟의 成長, 日本의 對美國關係의 性格 그리고 國內的으로는 競爭的 市場體制의 確立과 國內市場의 擴大 및 社會的 安定을 考察하고, 그 메카니즘으로는 競爭的으로 設備投資가 擴大되게 된 契機로서의 技術革新과 重化學工業化의 進展, 그것을 뒷받침한 資本 및 勞動의 供給條件과 經濟政策 및 經濟計劃을 중심으로 考察하였다.

(4) 下村治(1962, p.3).

(5) 最近의 研究動向에 대해서는 橋本壽郎(1986) 참조.

(6) 金宗炫(1988) 참조.

## II. 高度成長의 背景

### 1. 國際的 背景

#### 1) 世界經濟的 背景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의 國際的 背景으로 우리는 먼저 世界資本主義秩序로서의 IMF-GATT 體制와 그 밑에서의 世界經濟의 成長을 考察할 需要가 있을 것이다. 日本經濟는 國際經濟와의 밀접한 關係 속에 成長하였기 때문이다.

IMF-GATT 體制는 1930年代의 世界大恐慌을 계기로 나타난 貿易統制, 兌換管理에 따른 多角的 貿易 및 經濟制度的 붕괴와 第2次大戰時의 貿易規制의 強化로 國際經濟關係가 위축되는 속에서 戰後의 經濟復興과 成長을 위해서는 貿易 및 兌換上의 장애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反省에서 나타난 것이다.

1947年 3월에 발족한 IMF의 究極的 目標은 貿易 및 兌換上의 規制를 없애고 商品 및 資本의 自由로운 國際間移動을 실현한다는 데에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通貨의 國際的 交換性이 回復되고 兌換管理가 철폐되어야 하며 通貨의 平價切下競爭이 排除되어 兌換時勢가 安定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國際金本位制가 최종적으로 무너지고 管理通貨制度로 移行되고 있는 現實에서 通貨의 國際的 交換性이 回復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金과 兌換될 수 있는 通貨가 基軸通貨의 役割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경우 基軸通貨로서의 役割을 하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美國의 달러貨였다.

第2次大戰을 거치면서 世界資本主義에서 압도적인 經濟力을 갖게 된 美國의 달러貨에 대한 信賴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各國通貨의 平價는 달러와의 相對에서 決定되고 固定된 兌換率은 만성적인 실업의 발생과 같은 「基礎的 不均衡」이 나타나지 않는 한 原則적으로 變更될 수 없는 것으로 됨으로써 (=固定兌換率制) 通貨의 平價切下競爭이 排除되었다. 한편 달러는 35달러=金 1온스라는 비율로 兌換되게 되었다. 물론 달러도 國內에서의 兌換이 許容된 것은 아니지만 各國의 政府 및 通貨當局에 대해서는 兌換이 認定되었다. 따라서 IMF 體制下에서의 國際通貨制度는 基軸通貨인 달러를 통해서 金과 링크되어 있는 金本位制와 같은 것이었다.

한편 多角主義에 입각한 國際經濟關係의 擴大를 위해서는 各國의 恣意的인 兌換管理가 철폐될 뿐만 아니라 貿易統制도 철폐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兌換管理와 함께 貿易上의 각종 規制가 國際經濟에 큰 제약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1930年代의 經驗에서 얻은 敎訓이었다.

GATT도 이러한 要請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GATT(1947年 10月)는 多角的·無差別的으로 國際貿易에 接近하기 위한 것으로서 國際收支上의 困難이라든가 發展途上國의 幼稚産業의 保護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貿易의 數量的 制限을 原則적으로 禁止하고 關稅引下를 추진하였다.

IMF-GATT 體制下에서 國際通貨制度가 維持되고 機能하기 위해서는 基軸通貨인 달러의 價値가 安定的으로 維持되고 各國은 필요한 外貨(달러)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第2次大戰後 資本主義諸國은 케인즈이래의 巨視經濟學이 낳은 完全雇傭政策을 추진하였다. 各國은 國內的으로는 管理通貨制度下에서 財政·金融政策을 통해서 경기조정을 하면서 經濟成長을 추구하였다. 各國은 生産과 雇傭을 擴大시키고 經濟成長을 이룩하기 위해서 外貨(달러)가 필요하였다. 이에 各國은 外貨획득을 위하여 輸出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技術革新과 合理化를 통해서 生産性을 向上시키고 輸出競爭力을 強化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속에서 資本主義諸國의 經濟成長이 촉진되고 貿易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商品 및 資本의 自由로운 去來가 이루어지고 通貨의 交換性이 回復되어 IMF-GATT體制가 정상적으로 機能하고, 그 속에서 資本主義諸國이 自立的 基盤에서 經濟成長政策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1950年代 中盤 이후의 일이었다. 1950年代에 들어 유럽資本主義諸國은 戰後의 經濟再建과 復興을 이룩하여 成長의 軌道에 오르게 되었다. 通貨의 交換性이 回復되고(1958年) EEC가 발족하였다(1960年). 이러한 속에서 日本의 國際經濟關係의 기반도 확대되었다. 日本은 1950年代에 IMF(1952年 8月 調印)와 GATT(1955年 9月)에 加入하였으며 뒤이어 1960年代에는 「貿易爲替自由化計劃」(1960年)에 따라 貿易自由化를 실시하고(1964年에 自由化率 93%) GATT 11條國(1963年) 및 IMF 8條國(1964年)에의 移行과 OECD에의 加盟(1964年)을 거쳐 최종적으로 資本自由化(1967~73年)를 실시하였다.

1950年이후 世界經濟는 長期間에 걸쳐 순조로운 成長을 하였다. UN統計에 의하면 1950年이후 1960年代 中盤까지의 世界의 國內總生産(GDP)의 成長率은 약 5%였으며, 소련과 동구를 제외하면, 약 4.4%였다. <表 2>는 주요 資本主義國의 長期間에 걸친 經濟成長率의 水準을 나타낸 것이다. 第2次大戰後의 資本主義世界經濟의 成長率은 戰前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이었다. 이 時期는 資本主義經濟 全體로, 불 外 近代經濟史에 그 前例가 없을 만큼 長期間에 걸친 「安定的 高度成長」<sup>(7)</sup>의 시기였다.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은 이러한 資本主義經濟成長의 하나의 두드러진 例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 Postan(1967, pp. 12-21).

〈表 2〉 實質國民總生産의 年平均成長率

(%)

국	가	제 2 차 대전 전		제 2 차 대전 후		
		1960~1913 (53년간)	1913~1938 (25년간)	1953~1963 (10년간)	1963~1973 (10년간)	1953~1973 (20년간)
미	국	4.3	2.0	2.9	4.0	3.5
영	국	2.4	1.0	3.0	3.1	3.0
프	랑	1.1	1.1	4.9	5.6	5.2
독	일 <sup>1)</sup>	3.0	1.3	7.0	4.7	5.9
일	본	4.1	4.5	9.3	10.2	9.8

資料：正村公宏 (1978, p.5)에서 再引用.

註：1) 전후는 서독.

長期間에 걸쳐서 높은 經濟成長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世界貿易도 크게 伸長하였다. UN 統計에 의하면, 世界貿易의 규모는 1955~70년에 약 3배로 확대되었으며, 그것은 年平均 7.6%의 伸長에 해당한다. 이는 매디슨이 推計한 戰前의 成長率(1870~1913年 3.5%, 1913~50年 1.3%)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것이었다.<sup>(8)</sup>

世界貿易의 伸長을 주도한 것은 先進資本主義國間 貿易의 伸長이었다. 1948~70년에 世界貿易에서 先進資本主義國間 貿易이 차지하는 比重은 43.8%에서 61.7%로 크게 높아진 데 반해서 先進資本主義國과 開發途上國과의 그것은 42.4%에서 27.9%로, 그리고 開發途上國間 貿易은 9.4%에서 4%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sup>(9)</sup> 重化學工業이 발전하면서 先進資本主義國의 産業구조가 高度化되고 製品이 多樣化됨에 따라 그들 나라 相互間의 依存關係가 深化되면서 貿易이 확대된 것이다.

한편 先進資本主義國이 發展途上國의 資源을 支配하고 船舶의 大型化, 專用船化를 통해서 輸送費가 크게 節減되는 속에서 發展途上國의 一次產品輸出價格은 1950年 中盤 이후 60年代에 걸쳐서 下落하였다. 先進資本主義國의 立場에서 보면 輸出하는 工業製品價格에 비해 輸入하는 原燃料 등 一次產品價格이 下落한 것이다. 즉, 先進資本主義國의 交易條件은 호진된 반면 發展途上國의 그것은 惡化된 것이다. 世界貿易의 擴大過程은 國際分業에 입각한 世界各國의 相互依存關係가 深化되어가는 과정이었지만, 한편에서 先進資本主義國과 發展途上國과의 不平等한 經濟關係도 深化되었다. 이러한 國際經濟關係속에서 先進資本主義의 「安定的 高度成長」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世界經濟의 背景은 특히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에 有利한 것이었다. 世界貿易의 높은 伸長은 그만큼 日本의 輸出商品에 대한 需要擴大와 輸入商品의 확보에 유리한 一般의

(8) Maddison(1964, p.166).

(9) 楊井克己·石崎昭彦 編(1976, p.183).

背景이 되었다. 日本은 先進資本主義諸國중에서도 總輸出에서 工業製品輸出比率이 가장 높고 한편, 總輸入에서 原燃料輸入이 차지하는 比重이 가장 높은 나라였다. 전통적으로 綿製品을 비롯한 輕工業製品輸出이 중심이던 日本의 輸出商品構造는 高度成長過程을 통하여 重化學工業製品중심으로 變化하면서 輸入品構造도 原綿중심에서 鐵鑛石·石油 등 광물중심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原燃料 등 一次商品의 輸入價格은 下落하였다. 1955~65년에 原料는 약 14%, 鑛物性燃料는 25%나 價格이 下落하였다. 같은 期間에 日本의 輸入商品價格은 都賣物價라든가 輸出商品價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下落하였다.<sup>(10)</sup> 開發途上國에 대한 先進資本主義의 交易條件은 有利한 것이었지만<sup>(11)</sup> 특히 日本의 경우 더욱 그러하였다. 대규모 임해공업단지가 조성되고 大型콤비나트의 건설이 크게 진전되어 大型專用船舶에 의해서 原燃料의 生産地와 消費地를 직접 연결시킨 日本의 경우 輸送費節減效果는 매우 컸다. 특히 石炭에서 石油로의 연료 전환이 진전된 日本의 경우 長期間에 걸친 저렴한 石油의 確保는 高度成長의 背景으로 매우 有利한 것이었다.

IMF-GATT體制下에서의 先進資本主義經濟의 長期間에 걸친 「安定的 高度成長」, 世界貿易의 高伸長, 低廉한 原燃料의 確保라는 背景에서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이 이루어졌다.

## 2) 對美關係의 背景

위에서 우리는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의 國際的 背景으로 世界經濟의 側面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日本만이 아니라 나라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先進資本主義 經濟一般에 共通의인 背景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一般的 背景을 가지면서도, 日本經濟의 경우 특히 중요한 國際的 背景으로는 美國과의 關係라는 特別한 側面이 있었다. 日本의 對美關係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第2次大戰에서의 敗戰國·戰勝國=被占領國·占領國이라는 관계에서 나타난 政治的·軍事的 關係였다. 특히 戰後 日本經濟는 이러한 對美關係의 展開속에서 戰後 復興期와 뒤이은 高度成長期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占領直後の 美國의 對日政策은 基本的으로 日本을 非軍事化하고 民主化한다는 것이었다. 첫째의 非軍事化는 軍事力을 뒷받침해 온 生産力基盤을 파괴하고 그 復活을 저지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日本의 生産力을 一定한 水準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經濟的 復興도 곤란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둘째는 民主化로서, 특히 우리의 관심에서 중요한 것은 經濟民主化였다. 그것은 日本軍國主義의 社會經濟的 基盤을 무너뜨린다는 目的으로 추진된 政策으로 內容的으로는 農地改革, 財閥解體, 勞動運動의 助成이 추진되었

(10) 鶴田滿彦(1981, p.207).

(11) 宮崎犀一·奧村茂次·森田桐郎 編(1981, p.194) 참조,

다. 이들措置에 대해서는 뒤에 戰後改革과의 關係속에서 考察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日本의 철저한 非軍事化, 그것을 위한 무거운 賠償計劃 및 철저한 民主化改革을 基軸으로 하는 美國의 對日占領政策은 1947년이후 「冷戰」의 展開에 따라 轉換을 보게 되었다. 즉 그것은 「冷戰」을 수행하기 위하여 日本을 經濟적으로 復興시켜 아시아에 있어서 「反共을 위한 防壁」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政策轉換에 따라 美國의 對日賠償計劃은 점차 緩和되었고 1949년에 이르러 포기되었다. 이에 日本은 賠償負擔에서 벗어나서 戰時부터의 工業施設을 經濟復興에 利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美國援助는 1947년을 轉機로 經濟的 救濟를 위한 가리오아 援助에서 經濟復興을 위한 에로아 援助로 轉換되었다. 美國의 對日援助는 1951년에 종결될 때까지 약 21억달러에 달하였다. 1947~49년 동안 日本經濟의 復興을 위해서 필요한 輸入의 67%는 美國援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美國援助는 日本經濟의 復興을 위한 資本供給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美國援助는 1951년에 終結되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美國은 1949년에 「經濟安定 9原則」(Dodge line)을 실시하여 인플레이收束과 經濟的 安定을 이룩하고 自立經濟의 基반을 조성하여 1달러=360圓의 固定換率을 策定함으로써 日本經濟를 世界經濟와 연결시켰다. 固定換率을 도입함으로써 日本은 美國을 비롯한 外國資本의 導入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合理化를 통해서 輸出을 擴大할 수 있게 되었다. 1971년에 이르러 變動換率이 도입될 때까지의 22년동안 지속된 固定換率은 圓을 相對적으로 낮게 平價함으로써 日本의 輸出에 有利하게 作用하였다.<sup>(12)</sup>

軍事的 占領과 援助下의 日本의 美國에 대한 政治的 및 經濟的 「從屬」은 샌프란시스코講和條約(1951年 9月 調印, 1952年 4月 發效)에 의하여 自立에로의 轉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講和條約은 日本으로서는 再軍備를 포함하지 않고, 經濟的으로는 東南亞에 대한 役務賠償을 인정하였을 뿐, 다른 制限을 부과하지 않은 「寬大한」<sup>(13)</sup> 것이었다.

講和條約에 의해서 日本은 政治적으로 완전히 獨立을 回復하였지만, 그것은 소련이라든가 中國을 제외한 「片面」講和條約으로서 日本을 西方陣營의 一員으로 확실하게 位置지웠다. 講和條約과 함께 체결된 安全保障條約에 의해서 日本의 安全은 美國의 軍事力에 의해

(12) 1달러=360圓이라는 固定換率이 圓을 낮게 平價하였다는 見解는 通說이라고 볼 수 있다(篠原三代平(1961, pp. 383-5; 1965, pp. 259-60) 참조). 그러나 그것이 大企業商品의 輸出메이트로는 낮은 것이나 中小企業商品의 輸出메이트로는 높이 平價되었다는 說(松井清著(1962, pp. 98-9))이 있으며, 최근에는 通說을 批判하는 研究도 나타나고 있다(藤野正三郎 (April 1988)).

(13) 有澤廣己 監修(1980, p. 114).



서 保障되게 되었다. 이러한 日本의 安全保障體制는 1960년에 改正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샌프란시스코講和條約 體制下에서 美-日關係는 새로운 次元에서 再定立되었다. 日本은 政治적으로 獨立을 유지하면서도 國家의 安全保障을 美國의 軍事力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國際經濟關係의 基盤擴大도 적어도 1960年代에 들어설 때까지는 美國의 커다란 영향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더구나 日本은 貿易·資本 및 技術導入에서 美國에 크게 의존하였다.<sup>(14)</sup> 日本經濟는 이러한 對美依存속에서 經濟的 自立과 高度成長을 하였다.

첫째로 安全保障의 美國에의 의존은 日本의 軍事負擔을 적게 하였다. 日本은 美國으로부터의 再軍備要請을 거부하면서 軍費負擔을 지지 않고 經濟復興에 우선을 두었다. 일본의 防衛費는 GNP의 1%內外, 그리고 一般會計의 10%內外에 불과하였다. 그것은 美國에 비해서는 물론 英國, 독일, 프랑스의 그것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이었다. 낮은 軍事費 負擔으로 말미암아 日本은 經濟剩餘를 보다 많이 設備投資로 돌리고 經濟成長을 뒷받침할 수가 있었다.<sup>(15)</sup>

둘째로 對東南亞賠償은 日本의 이 지역에 대한 경제관계확대의 계기가 되었다. 日本과의 經濟關係를 통해서 東南亞地域을 西方陣營에 머물게 한다는 美國의 世界戰略에 뒷받침되어서, 賠償은 高度成長기에 걸쳐 분할지불됨으로써 그 負擔은 실제적으로는 경미하였으며, 支拂內容도 役務만이 아니라 資本財를 중심으로 한 實物賠償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것은 無償經濟協力과 圓借款의 提供과 함께 東南亞國家들에 대한 日本의 再進出을 可能하게 하고 高度成長期를 통하여 日本이 東南亞市場을 擴大할 수 있게 하였다.<sup>(16)</sup>

세째는 美國에 대한 日本의 經濟的 依存性이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援助가 終結된 후에는 特需收入과 公共借款을 통해서, 그리고 高度成長기에 들어서는 多國籍企業 등 民間베이스로 美國資本이 도입되었다. 특히 高度成長기에 日本은 導入技術의 57%를 美國으로부터 도입하였다. 한편 日本의 對美貿易依存도는 1950~59년에는 年平均輸出의 21.0%, 輸入의 35%, 1960~69년에는 각각 27.8%와 30.0%, 그리고 1970~79년에는 각각 26.1%와 21.7%였다. 1960年代이후 輸入依存도가 낮아지고 있으나 對美貿易依存도는 높았다.<sup>(17)</sup>

(14) 日本貿易에서 對美貿易이 차지하는 比重은 1950~69년에 輸出 24.8%, 輸入 32.5%였다. 한편 1955~67년의 日本의 技術導入總件數(4,328件)의 약 60%가 美國으로부터 導入된 것이었다(中村靜治(1979, pp.60-1)).

(15) 中山伊知郎·篠原三代平 編(1969, p.61).

(16) 有澤廣己 監修(1980, pp.150-4), 馬場宏二(1974, pp.1-3) 참조.

(17) 正村公宏(1983, p.129).

美占領政策의 轉換에 따른 賠償負擔의 輕減, 經濟復興을 위한 援助, 「特需」, 샌프란시스코 體制下에서의 낮은 軍事費 負擔, 貿易, 資本 및 技術 등 經濟的 側面에서의 對美依存性 등은 日本經濟의 復興과 成長에 有利한 背景이 되었다.

## 2. 國內의 背景

### 1) 競爭的 市場經濟體制의 確立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을 뒷받침한 國內의 背景으로 우선 들어야 할 것은 競爭的 市場經濟體制의 確立이다. 즉 日本資本主義가 少數의 財閥이 支配하는 戰前의 硬直的·寡占的 體制에서 다수의 企業들이 市場原理에 따라 積極적 活動을 수행할 수 있는 競爭的 體制로 變質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變質을 結果한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특히 財閥解體를 중심으로 한 戰後의 民主化政策이었다.

財閥解體는 뒤에서 고찰하는 農地改革과 함께 「戰爭潛在力」을 일소하고 經濟民主主義를 實現한다는 目的으로 美占領軍當局에 의해서 實施된 중요한 改革이었다.

日本의 工業生産力은 소수의 財閥에 集中되어 왔으며 財閥의 支配體制下에서의 초과이익이 國內市場을 좁게 하여 日本으로 하여금 帝國主義侵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는 기본 인식하에 占領軍當局은 經濟的 「非軍事化」와 「民主化」를 目的으로 財閥解體를 실행하였던 것이다.

財閥解體의 기본내용은 族閥에 의해 所有되어 다수의 企業들을 支配하고 있던 財閥本社=持株會社를 解體하여 族閥의 企業支配를 排除하고 所有株式을 公開·分散한다는 것이었다. 財閥解體를 위한 최초의 措置(1945年 11月)는 三井, 三菱, 住友, 安田 등 4大財閥의 解體計劃과 持株會社整理委員會의 設립에 관한 것이었다. 즉, 그것은 持株會社整理委員會를 設립하여 이들 財閥本社=持株會社의 所有株式을 이에 양도하면, 同委員會는 양도받은 株式을 一般에 公賣하고 族閥을 비롯한 財閥의 支配者를 關係企業에서 追放한다는 것이었다. 그후 解體對象으로 지정된 持株會社는 증가하여 1947年 9月까지 83社에 이르렀고, 그 傘下會社는 4,500社로 되었다. 또한 1947年 2月에는 財閥家族으로 56名이 지정되어 그들의 會社經營을 제한하고 企業支配를 排除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財閥解體와 함께 獨占資本一般에 대해서는 카르텔協定 등의 금지를 지정한 「獨占禁止法」(1947年 7月)이 公布·實施되고 뒤이어 그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고 大企業의 獨占的 支配를 排除하기 위하여 「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集排法」1947年 12月)이 公布·實施됨으로써 財閥系의 大企業들은 分割되었다.

그러나 「冷戰」이 進行되는 속에서 財閥解體計劃은 본래 意圖한 바대로 철저히 시행되지

는 못하였다. 解體된 持株會社는 指定된 83社중의 42社에 머물렀으며 「集排法」에 의해서 分割對象으로 지정된 會社는 325社였으나 최종적으로 指定된 것은 18社로 되고 그중에서도 실제로 分割된 것은 11社<sup>(18)</sup>에 불과하였다. 根本적으로 解體된 것은 財閥本社와 그와 직접 관계가 있는 會社에 限定되었다. 예를 들어 三井, 三菱의 경우는 각각 200社와 139社로 철저히 분할되었다. 한편 銀行은 「集排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財閥系銀行은 持株會社의 解體에 따라 放出된 財閥系企業株式의 많은 部分을 所有함으로써 후에 새로운 企業集團의 形成에 중심적인 役割을 하였다.

財閥解體는 當初의 意圖와는 달리 철저하게 시행되지는 못하였지만, 日本의 獨占資本의 存在形態와 나아가 資本主義의 性格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財閥解體는 財閥一族이 완전히 支配하는 封鎖的인 持株會社(本社)를 解體시키고 그 株式을 一般에게 公開함으로써 大衆資本의 動員을 용이하게 하여 資本調達의 側面에서 大企業이 成長할 수 있는 條件이 되었다. 戰前에도 重化學工業에 기반을 둔 財閥의 경우에는 株式公開 = 大衆資本의 動員은 이미 나타나고는 있었으나, 역시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限定된 것이었으며 더구나 日本財閥의 中樞의 位置에 있는 綜合財閥은 소수의 族閥에 의해서 株式이 支配되고 다수의 傘下企業이 統制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財閥의 支配體制가 解體되어 傘下企業들은 分割獨立되고 財閥家族은 所有에서 排除되었을 뿐만 아니라 經營에서도 排除되었다. 이에 所有와 經營이 分離되고 企業은 새로운 專門經營者에 의해서 관리되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財閥解體는 「經營革命」을 결과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分割된 財閥系企業들이 상호관련을 갖지않고 完全히 獨立的으로 存在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株式의 相互所有를 통해서 相互關聯을 가지면서 巨大한 企業集團을 形成하였다. 이러한 企業集團의 形成에 中心的 役割을 한 것은 銀行이었다. 銀行은 「集排法」의 對象에서 除外됨으로써 강력한 資金力を 維持할 수 있었으며 한편 分割된 다수의 企業들의 資金力は 크게 弱화되었다. 이들 企業들이 高度成長期에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設備投資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資本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資金供給에서 중요한 役割을 한 것이 銀行이었다.

특히 舊財閥系 銀行의 資金力は 큰 것이었다. 그들 銀行은 系列企業에의 融資를 적극적으로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系列企業의 集團이 形成되었다. 2次에 걸친 「獨占禁止法」의 改正으로 競爭會社株式保有禁止規定이 緩和되어 특히 金融機關에 의한 他會社株式保有限度가 5%에서 10%로 擴大되고 競爭會社間의 任員兼任의 禁止가 완화됨으로써 銀行을 통한 系列

(18) 山崎隆三 編(1985, p.198).

融資・株式의 相互所有・人的 結合을 통해서 資本그룹이 形成되는 것이 合法化되었다. 이러한 기반하에서 銀行의 系列融資, 株式所有, 人的 結合을 통해서 企業集團이 形成되었다.<sup>(19)</sup>

企業集團은 舊財閥의 中樞의 位置에 있었던 銀行이라든가 商社를 중심으로 同一資本系 企業으로 構成되어 있고, 程度의 차이는 있지만 「社長會」를 중심으로 意思決定이 이루어진다는 意味에서 「財閥」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形成을 「財閥의 復活」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강력한 綜合的 統制機構인 持株會社를 통한 Konzern的 結合體인 戰前의 「財閥」의 단순한 復活은 아니었다. 企業集團에 있어서 株式은 特定族閥에 의해 所有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公開되어 分散所有되었다. 그러나 그 경우 特種적인 것은 株式所有가 광범하게 分散化・大衆化되기 보다는 系列企業에 의해서 相互所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日本의 資本主義는 株式을 大衆이 所有하는 「大衆資本主義」가 아니라 機關會社(法人)가 所有하는 「法人資本主義」<sup>(20)</sup>이다. 系列企業에 의한 株式의 相互所有와 最高專門經營者로 구성되는 「社長會」를 매개로 한 相互支配・協力을 기본특징으로 하는 企業集團은 戰前의 財閥과 같은 견고한 統合體가 아니라 獨立的 企業들의 느슨한 결합體였다.

企業集團體制 속에서 企業間의 활발한 競爭과 專門經營者에 의한 積極적인 企業活動이 展開되었다. 「集排法」에 의한 대규모 企業의 分割로 生産에 있어서의 上位 3社 또는 10社의 生産集中度는 戰前에 비하여 低下하였다.<sup>(21)</sup> 市場支配력을 가질 수 없는 體制下에서 企業들은 「市場占有率 擴大」를 위하여 치열한 競爭關係에 들어가게 되었다. 더구나 各企業集團이 특히 新興産業分野에서 系列會社를 하나씩 所有한다는 「원세트主義」政策을 추구하는 속에서 企業間 競爭은 더욱 촉진되었다.<sup>(22)</sup> 이러한 企業間 競爭體制가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技術革新을 위한 設備投資競爭을 낳고 그것이 「投資가 投資를 부른다」라는 相互聯關效果를 낳으면서 高度成長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財閥解體의 結果로서 日本의 資本主義는 戰前期의 硬直的・寡占的 體制에서 競爭的 市場經濟體制로 變化되었다.

## 2) 國內市場의 擴大와 社會的 安定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을 뒷받침한 國內의 背景으로 다음에 들어야 할 것은 經濟成長에 따라 國內市場이 擴大될 수 있고 社會的 安定이 이루어질 수 있는 基盤이 造成되었다는 것이다. 事實, 日本의 高度成長은 需要面에서 볼 때, 外國市場도 중요하였지만 특히 國內市場

(19) 奥村宏(1969, pp.52-69).

(20) 奥村宏(1984, pp.51-66).

(21) 中村隆英(1978, p.152), 正村公宏(1978, p.194, p.197).

(22) 官崎義一(1966, pp.48-55; 1985, pp.64-71) 참조.

의 擴大에 크게 뒷받침되었다는 것과 長期間에 걸친 社會的 安定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戰前의 日本의 資本主義는 기본적으로 不在地主와 多數의 財閥에 經濟力이 集中되고 農民·勞働者 등 國民大衆은 相對的 貧困속에서 國內市場은 擴大될 수 없었고 따라서 軍事力을 배경으로 帝國主義的 對外膨脹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特質을 가진 戰前의 日本資本主義가 戰後에는 美占領軍當局에 의해서 실시된 經濟民主主義政策을 계기로 變化된 것이다. 經濟民主主義는 앞에서 고찰한 財閥解體와 함께 農地改革, 勞働運動의 助成을 통하여 추진되었다.

農地改革은 敗戰直後 日本政府의 주도하에 計劃되었다. 第2次 大戰이전의 日本에서는 農地와 農民의 大部分이 寄生地主制下에 있었으며 그속에서 小作料는 畚의 경우 수확의 50%에 가까운 高率의 現物地代였으며, 小作權은 매우 不安定한 것이었다. 따라서 農家所得과 農民의 生活水準은 낮은 水準이었고, 그것이 日本의 低賃金의 온상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現實에 대해서 「講座派」에 속하는 學者들은 日本資本主義를 地主·小作關係를 「基底」로 하는 半封建的 社會構成으로 인식하였다.<sup>(23)</sup> 敗戰直後の 社會經濟的 混亂과 급진적 思想이 팽배하는 속에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政府는 「위로부터」 農地改革을 수행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日本政府가 주도한 第1次 農地改革案은 美占領軍 當局으로서는 매우 不徹底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美占領軍 當局은 「農地改革에 관한 覽書」(1945年 12月)를 발표하고 日本政府로 하여금 徹底한 農地改革을 하도록 要求하였다. 이 覽書는 日本政府로 하여금 “民主化 促進上 經濟的 障害를 排除하고 人權의 존중을 완전히 하고, 또한 數世紀에 걸친 封建的 體制下의 日本農民을 奴隸化하여온 經濟的 桎梏을 타파하기 위하여…… 그 耕作農民에 대해서 그 勞働의 成果를 享受시키기 위하여 現狀 以上の 均等한 機會를 保證할 것”을 命令하고 있었다.

이에 보다 徹底한 第2次 農地改革(1946年 12月)이 實施되었다. 第2次改革에 의해서 買收되어야 할 農地는 不在地主의 全土地와 在村地主의 所有地 1町步를 초과하는 全農地로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改革實施 2年 동안에 200만町步가 自作農地化되고, 小作料는 25%(畚) 내지 15%(田)를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農地改革은 1950년에 일단 完了되었다. 그 결과 總耕地에서 차지하는 自作地의 比率는 戰前의 약 50%에서 87%로 높아졌으며 또한 全農民의 84%가 自作 또는 自小作農이 되었다. 이에 따라 日本農村을 지배하던 前近代의 勢力으로서의 不在地主는 일소되고 自作農을 기축으로 하는 戰後 日本農村의 構造的 特徵

(23) 小島恒久(1976, pp.27-8, pp.41-4) 참조.

이 形成되었다.

農地改革의 評價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見解들이 있다. 地主—小作關係=半封建的 所有를 日本資本主義의 「基底」로 인식한 「講座派」의 立場에서는 그것은 近代의 土地所有=農民의 經營의 制度的 基盤을 마련한 「革命的」인 것으로 評價되었다.<sup>(24)</sup> 이에 대해서 農地改革을 그 「革命」性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면서도 自作農創設·農民의 自立的 發展의 基盤의 成立이라는 점에서 歷史적으로 評價하는 見解<sup>(25)</sup>와 小農維持를 통하여 資本主義의 再編을 뒷받침할 低賃金의 基盤이 되었다고 低評價하는 見解<sup>(26)</sup>가 있으며 더 나아가 發展의 要素가 전혀없이 農民을 保護政策이라는 名分下에서 단순한 小財產所有者로서 퇴폐시키는 始發點이 되었다고 否定的으로 評價하는 見解도 있다.<sup>(27)</sup>

그러나 農地改革의 意義는 一般的으로 積極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農地改革에 의해서 日本農業의 近代의 發展을 제약하고 있던 要素는 제거되었다. 小作制度가 철폐되고 自作農體制가 확립됨으로써 農業經營의 安全性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零細經營에서 오는 制約은 있으면서도 農民의 生産意欲에 의해 農業生産이 크게 增加하고, 農業投資水準이 上昇하고 農産物 商品化의 多角化가 進展되면서 農業所得이 크게 改善될 수 있는 制度的 基盤이 마련되었다. 農業所得의 農村經營外로의 流出率은 戰前의 20%에서 3%로 격감하였다.

1955年 이후의 食糧增産과 農業技術의 革新은 이러한 基盤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農業所得의 改善과 農業投資의 확대는 工産品에 대한 農民의 有效需要의 확대를 의미하였다. 또 農地改革에 의해서 農民의 小作爭議는 소멸되었고, 그것은 高度成長과의 관련에서 중요한 社會的·政治的 安定의 條件이 되었다. 日本의 保守黨에 의한 政治的 安定은 바로 여기에 그 基盤이 있었다.<sup>(28)</sup>

勞動運動의 助成은 그때까지 無權利狀態와 낮은 賃金水準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都市勞動者들에게 正當한 權利를 法的으로 保障하여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使用者에 의한 一方的 착취로부터 벗어나고 經濟的 地位를 改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占領軍當局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目的에서 「勞動組合法」(1946年), 「勞動關係調整法」(1946年) 및 「勞動基準法」이 制定되어 1日 8時間 그리고 週48時間 勞動制가 확립되었다. 이들 勞動關係의 3大立法이 정

(24) 山田盛太郎(1949, p.183).

(25) 花田仁伍(1969, p.351).

(26) 二瓶敏(1981, p.53).

(27) 古川哲((1977, p.209).

(28) 香西泰(1981, pp.21-3).

비됨으로써 勞動者의 法的 地位는 크게 改善되어 前近代의 勞使關係와 低賃金은 止揚되게 되었다. 勞動三法이 정비되면서 勞動運動은 급진전하였다. 日本의 勞動組合組織의 특징은 企業別組合—産業別組合聯合體—全國組織이라는 3段階로 構成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組合의 基本단위는 企業단위로 生産職과 事務職이 함께 加入하여 組織된 組合이었다. 이러한 특징의 組合이 나타나게 되는 데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企業一家主義와 함께 戰後의 經濟的 困難속에서 階層的 差異를 초월하여 公同의 目的으로 단결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었다.

企業單位の 末端的 組合은 企業意識이 강했으나 中央組織은 政治鬭爭을 하였다. 처음에는 共產黨系統의 「産別」(産業別勞動組合會議)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社會黨系統의 總同盟과 대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冷戰이 進展되고 「産別」이 주도한 2.1 總罷業(1947)이 占領軍當局에 의해서 彈壓되고 1949년에는 政治的 解雇가 容認되는 속에서 「産別」세력은 弱화되고 그 批判세력이 중심이 되어 1950년에 總評(日本勞動組合總評議會)이 結成되었다. 戰後 日本의 政治過程과 勞動運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總評」이었다.

「總評」은 처음에는 反美的·左傾的 組合의 性格을 띠고 政治鬭爭을 하였다. 그러나 1955년부터 「總評」은 路線을 轉換하여 政治鬭爭보다 經濟鬭爭으로서의 賃金引上을 實現하는 運動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에 産業別 統一鬭爭으로서의 「春鬭」가 시작되어 勞動組合主義가 定着되게 되고 每年 거듭되는 「春鬭」는 賃金引上을 위한 有效한 方法이 되었다. 그것을 통해서 임금인상액이 産業間, 企業間에 平準化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企業別勞動組合은 勞動條件의 改善및 解雇反對—終身雇傭의 保障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러한 過程을 거쳐 1950年代 중엽에는 終身雇傭과 年功序列賃金制를 기둥으로 하는 日本型의 勞使關係가 定着되었다.

勞動組合運動을 통해서 勞動條件이 改善되고 賃金이 引上됨으로써 勞動者의 經濟的 地位는 向上되었다. 그것은 農民의 經濟的 地位의 改善과 함께 經濟民主化를 실현하는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購買力을 증대시키고 國內市場擴大의 基本적 條件이 되었다. 또한 産業民主主義의 定着은 企業이 安定基盤위에서 적극적으로 生産性 向上=合理化를 도모하여 成長할 수 있는 條件이기도 하였다.

### III. 高度成長의 메카니즘

#### 1. 技術革新과 重化學工業化의 進展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을 주도한 것은 民間設備投資의 擴大였다. <表 3>에서 GNP의 最終

〈表 3〉 GNP의 最終需要項目別 伸長率

需要項目 \ 年度	1955~60	1960~65	1965~70	1970~75
民間最終消費	7.7	8.3	8.7	5.4
民間住宅	14.5	17.4	14.5	6.1
民間企業設備	22.6	8.7	22.2	0.7
政府最終消費	2.9	7.1	5.5	5.2
公的固定資本形成	13.8	16.0	11.9	6.4
輸出等	12.3	14.9	16.3	11.3
(控除)輸入等	16.9	12.5	16.6	5.9
國民總支出	8.7	9.7	11.1	4.7

資料：金森久雄·香西泰 編(1982, p.38).

〈表 4〉 實質國民總支出

(單位：10億圓)

年次	個人消費支出	政府經常購	民間固定資本形成	住宅	企業設備	政府固定資本形成	輸出과 海外로부터의 所得	國民總支出
1955年	10,496 (62.1)	2,835 (16.8)	1,799 (10.6)	562 (3.3)	1,237 (7.3)	929 (5.5)	1,099 (6.5)	16,901 (100)
1960	15,281 (60.1)	3,227 (12.7)	4,477 (17.6)	1,103 (4.3)	3,374 (13.3)	1,670 (6.6)	2,023 (8.0)	25,406 (100)
1965	23,448 (57.4)	4,548 (11.1)	8,105 (19.8)	2,464 (6.0)	5,641 (13.8)	3,497 (8.6)	4,012 (9.8)	40,880 (100)
1970	36,259 (51.3)	5,796 (8.2)	18,956 (26.8)	4,761 (6.7)	14,195 (20.1)	5,811 (8.2)	8,272 (11.7)	70,635 (100)
1973	45,920 (50.5)	7,166 (7.9)	25,147 (27.7)	6,714 (7.4)	18,434 (20.3)	8,766 (9.6)	11,136 (12.3)	90,851 (100)

資料：經濟企劃廳, 『國民所得統計年報』, 1975年.

需要項目別 伸長率을 보면 民間設備投資의 伸長率이 다른 項目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것이 高度成長의 全期間에 걸쳐서 높았던 것은 아니며 「轉型期」라고 불리는 1960年代 前半期는 相對的으로 크게 낮지만 그 이전의 1950年代 後半期와 그 이후의 1960년대 후반기는 伸長率이 두드러졌다. 前期는 高度成長이 시작된 時期였으며 後期는 「1965年 不況」에 이어 또 다시 대규모의 設備投資가 이루어지고 높은 成長이 이루어짐으로써 日本經濟의 「大型化」, 「國際化」가 進展된 時期이다. 「轉型期」에는 民間設備投資의 伸長率이 떨어진 반면에 民間住宅과 公的 固定資本形成 그리고 輸出이 크게 伸長하였다.

그 結果 實質國民所得에서 차지하는 民間固定資本形成의 比率은 〈表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高度成長期에 10.6%에서 27.7%로 上昇하고 이에 政府固定資本形成의 比率을 합하면, 總固定資本形成의 比率은 16.1%에서 37.3%로 높아지고 있다. 項目別 比率로 보면 個人消費支出이 가장 높으나 相對的 比重은 떨어지고 있다. 高度成長期에 6.5%에서 12.3%로 比重이 2倍로 커진 輸出 및 海外로부터의 所得이 生産力增大의 結果로 볼 수 있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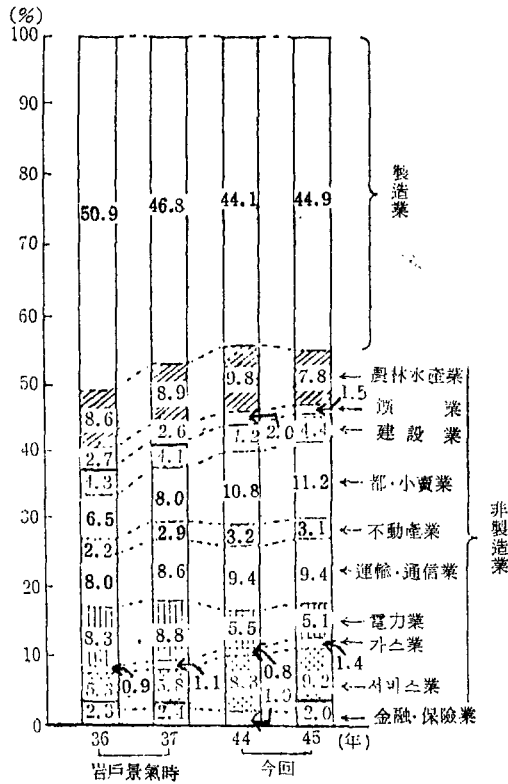
〈表 5〉 鑛工業生産増加에 대한 最終需要別 寄與率 (單位: %)

需要項目	年 度		需要項目	年 度	
	1958~61年	1966~69年		1958~61年	1966~69年
個人消費	22.6	23.5	財政支出	8.0	7.5
民間投資	44.6	42.4	在庫投資	13.8	5.3
그중 { 民間設備投資	(41.4)	(36.7)	輸 出	11.0	24.3
	(3.2)	(5.7)	計	100.0	100.0

資料: 經濟企劃廳, 『經濟白書』, 1970, p. 41.

民間設備投資의 意義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鑛工業生産増加에 대한 最終需要別 寄與率(〈表 5〉 참조)을 보면 民間投資가 44.6%(1958~61年) 내지 42.4%(1966~69年)로 가장 높다.

設備投資는 全産業에 걸쳐서 광범하게 이루어졌다. 그속에서 産業의 合理化·近代화가 進展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工業에 대한 것이었다. 〈그림 1〉은 設備投資의 業種別 構成을 나타낸 것이다. 設備投資의 業種別 構成은 時期에 따라 變化하고



〈그림 1〉 設備投資의 業種別 構成

資料: 經濟企劃廳, 『經濟白書』, 1971, p. 21,

〈表 6〉業種別 設備投資 構成比(製造業)

(單位：%)

	1957年度	1961年度	1966年度	1967年度
重 化 學 工 業	78.2	81.5	81.2	82.5
鐵 鋼	26.6	22.7	20.7	20.2
非 鐵	4.6	4.8	5.0	4.9
機 械	18.3	23.4	24.5	27.1
(自 動 車)	(4.7)	(8.0)	(12.1)	(14.0)
化 學	17.4	18.5	17.8	17.8
(石 油 化 學)	(—)	(6.6)	(6.2)	(6.7)
石 油 精 製	7.6	6.8	9.4	9.1
窒 業	4.8	5.3	3.8	3.4
輕 工 業	21.8	18.5	18.8	17.5
食 料 品	2.3	4.9	4.8	4.2
織 維	11.8	6.5	5.9	5.9
紙 帛	5.3	4.2	4.0	3.1
其 他	2.4	2.9	4.1	4.3

資料：經濟企劃廳, 『經濟白書』, 1968, p.22.

있다. 高度成長의 前期와 後期를 對比해서 보면 工業의 比率은 後期에 약간 작아진 反面에 都·小賣業 및 서비스業의 比率은 後期에 커지고 있다. 특히 都·小賣業部門에의 設備投資가 확대되는 속에서 「流通革命」이 이루어졌고 販賣業에서의 合理化·大量化가 進展되었다는 것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全期間을 통하여 工業이 차지하는 比重은 45~50%에 이르고 있다. 工業에서도 設備投資構成比를 보면(〈表 6〉 참조) 鐵鋼·機械·化學 등 重化學工業이 약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정도를 輕工業이 차지하고 있다.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民間設備投資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속에서 高度成長이 이루어진 것이다.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設備投資는 技術革新을 위한 것이었다. 閉鎖的인 오랜 戰時經濟體制 속에서 日本의 工業技術은 歐美의 先進技術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었다. 戰後의 經濟復興은 先進技術의 導入보다는 既存生産施設의 復舊와 가동률의 증대 그리고 신규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戰爭으로 인해서 日本은 國富의 25%를 잃을 만큼 막심한 被害를 입었지만 工業生産施設의 피해는 크지 않았다. 게다가 그동안 뒤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미 높은 水準의 技術業績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條件위에서 美國援助와 「特需」에 힘입어 經濟復興은 進展되었다. 그것은 經濟復興과 成長의 初期的 條件으로는 有利한 것이었다. 그러나 自立經濟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됨에 따라 높은 生産코스트, 낮은 輸出競爭力이 커다란 問題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ดุล지라인에 의해서 日本의 經濟政策의 方向이 國內經濟中心主義에서 國際貿易中心主義로 轉換되고 그것이 그후 계속되면서 生産性

向上=輸出競爭力의 強化는 절대적인 要請이 되었다. 이에 産業合理化政策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그에 따라 外國技術의 導入이 적극 추진되었다. 그경우 外國技術의 도입에 따른 技術革新은 重化學工業部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 部門에서의 技術革新이 다른 部門에서의 그것을 誘發하고 그와 관련하여 한 部門에서의 投資가 다른 部門에서의 投資를 부르면서 民間設備投資가 경쟁적으로 수행되는 過程이 바로 高度成長의 過程이었다.<sup>(29)</sup>

産業合理化政策은 이미 1949년에 方向지워지고 1950年代에 들면서 추진되었다. 合理化計劃이 가장 일찍 도입된 部門은 「傾斜生産方式」의 重點産業이었던 鐵鋼과 石炭이었다. 石炭産業의 合理化는 에너지源이 石油로 轉換됨에 따라 實效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鐵鋼業은 「第1次 合理化計劃」(1951~53年)에 따라 合理化가 추진되었다. 특히 壓延部門의 合理化가 집중적으로 추진되어 最新式裝備인 스트립 밀이 도입됨으로써 自動化-高速화-大量化에 大革新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品質面에서도 自動車, 各種耐久消費財, 造船用的 高級鋼材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時期에는 鐵鋼이외에 電力, 造船, 化學工業部門에서 設備近代化-合理化가 추진되고 그와 함께 合成纖維, 合成樹脂, 電子工業 등의 新工業이 出現하고 그 産業의 基盤을 가지게 되었다. 設備近代化, 合理化는 外國技術의 도입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이 時期에 그동안 落後되었던 日本의 技術水準의 先進國水準에의 凱一업이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高度成長期로 이어졌다.

高度成長期에 들어 技術革新은 보다 광범하게 展開되었다. 鐵鋼業에서는 「第2次 合理化計劃」(1955~60年)이 시행되었다. 第2次計劃의 投資規模(5천억圓)는 第1次計劃의 그것(1천 200억圓)의 4배를 넘는 것이었다. 第2次計劃이 실시됨으로써 핫스트립 밀은 3基(1956年)에서 7基(1960年) 그리고 13基(1965)로 증가하여 美國에 이어 世界 第2位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LD化率도 11.9%(1960年)에서 55%(1965年)로 2位인 독일(19.1%)를 크게 앞질렀다.<sup>(30)</sup> 그 결과 1961년에는 八幡製鐵所는 세계 제 4위, 富士製鐵은 제 9위의 生産能力을 갖게 되었고 生産性이 向上되어 鐵鋼價格도 國際價格보다 낮아지게 되었다. 電力業에서는 1957~62年の 대규모 電源開發計劃에 의해서 水力中心에서 火力中心으로 크게 전환하고 에너지源이 石炭에서 石油로 전환(「主油從炭」)하는 속에서 石油工業이 크게 발전하였다. 특히 石油價格의 대폭적인 低下라는 條件에서 에너지源으로서의 石炭의 石油로의 轉換

(29) 宍戶壽雄(1977, p.112)은 1955~65年の 經濟成長의 64.3%가 技術進歩에 의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大川氏와 데니슨-청(Denison-Chung)氏는 日本의 經濟成長에 대한 技術進歩의 寄與率을 각각 69.8%(1955~61年)과 58.4%(1953~71年)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니시미즈-홀텐(Nishimizu-Hulten)氏는 그것을 25.2%로 낮게 보고 있다.

(30) 安藤良雄編(1979, p.168).

〈表 7〉外國技術導入件數

	1955~61	1962~65	1966~70
電氣機械	295(23.8)	465(24.9)	1,296(27.1)
通信機械	148(12.0)	155( 8.3)	223( 4.7)
輸送用機械	78( 6.3)	57( 3.1)	252( 5.3)
金屬工作機械	17( 1.4)	71( 3.8)	138( 2.9)
金屬屬	119( 9.6)	210(11.3)	374( 7.8)
化學	298(24.1)	338(18.1)	971(20.3)
醫藥·農藥	48( 3.9)	38( 2.0)	117( 2.4)
有·無機藥品	18(185.2)	222(11.9)	461( 9.6)
紡織	64( 5.2)	50( 2.6)	256( 5.4)
石油	28( 2.3)	31( 1.7)	94( 2.0)
合計	1,238(100.0)	1,864(100.0)	4,784(100.0)

資料：經濟企劃廳, 『經濟要覽』.

을 가져온 「에너지 革命」은 相關산업에 광범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기초산업부문에서의 技術革新은 電氣機械, 自動車, 石油化學, 合成纖維 등 諸部門에 技術革新과 發展을 촉진하였다. 電氣機械工業에서는 세탁기, TV, 트랜지스터라디오, 냉장고 등 家庭電氣製品이 등장하여 生産이 급증하였으며 量産體制의 확립으로 價格이 크게 내렸다. 自動車工業에서는 量産體制가 정비되어 生産能力은 급증하였고 生産費는 크게 절감되었다. 石油化學工業은 「石油化學工業의 育成對策」(1955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기업화하기 시작한 후 급속한 발전을 하였고, 그것은 合成樹脂, 合成 고무 등 일련의 新製品에 素材를 공급함으로써 이들 新産業을 발전시켰다. 그와 함께 三井, 三菱, 住友, 日石 등 先發會社에 뒤이어 60年代에 들어 丸善, 東燃, 三菱化成, 出光興産, 大協 등 5社가 새로이 등장하고 全國에 9개의 石油化學 콤비나트가 출현하였으며 그에 따라 新工業地帶가 形成되게 되었다.

技術革新은 外國(특히 美國)技術의 導入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外國技術導入件數(〈表 7〉 참조)는 高度成長의 初期에 이미 1,238件에 이르렀으나, 그후 漸増하다가 後期에는 약 4,800件에 이르고 있다. 「轉型期」인 中間期에도 그것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部門別로는 電氣機械와 化學을 위시하여 機械·金屬 등 重化學工業이 중심이며 紡織은 次要하였다. 高度成長期の 技術革新은 導入된 技術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경우 日本技術의 특징은 導入된 外國技術을 再結合하여 낮은 費用의 量産體制를 만들어 냈다는 데에 있다. 이 段階에서 日本은 技術模倣國이라고 불리어질 만큼 새로운 技術은 거의 外國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日本이 導入技術을 自國의

〈表 8〉 研究投資・海外技術利用費의 推移(製造業)

年 度	設 備 投 資 (A)	研究投資・海外 技術利用費 (B)	B/A	그 中 海外技術 利用 費 (C)	C/B
	億圓	億圓	%	億圓	%
1960	9,155	1,190	13.0	173	14.5
1961	12,084	1,500	12.5	222	14.8
1962	10,513	1,640	15.6	259	15.8
1963	10,198	1,790	17.5	304	17.0
1964	11,830	2,110	17.8	380	13.0
1965	10,529	2,370	22.6	485	20.4
1966	10,719	2,583	24.1	530	20.5

資料：經濟企劃廳, 『經濟白書』, 1967年, p.30.

條件에 적합하도록 修正・補完・再結合하여 利用함으로써 大量生産體制를 만들어내고 生産性을 높임으로써 코스트節減效果를 높였다는 것은 注目되어야 할 것이다.<sup>(31)</sup> 예를 들어 鐵鋼業의 경우 導入技術의 組立을 통하여 製作所는 수송편의를 위하여 立地的으로 海岸에 건설되고, 原料에서 高爐・製鋼・壓延 등의 諸工程이 직접 結合될 수 있도록 配置되어 各部門에 最新技術이 도입되어 建設됨으로써 낮은 코스트로 大量生産을 이룩하고 國際競爭力을 높였다. 이와 유사한 例는 石油化學工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입된 技術을 再結合하여 利用할 수 있었던 것은 日本의 技術熟練이 戰前・戰時를 통하여 이미 상당정도 높은 水準의 축적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技術의 開發利用을 위한 積極적인 努力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第2次 世界大戰期間에 技術導入과 機械輸入이 不可能한 狀態에서 日本은 戰爭遂行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야만 하였다. 한편 研究投資・海外技術利用費는, 1960年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66년에는 設備投資의 24.1%에 달하였으며 그중 20.5%는 海外技術利用費였다(〈表 8〉 참조). 高度成長期에 도입된 技術은 이미 一般화된 既存技術이라기 보다 막 商品化되려던 것들로 日本의 企業들은 研究開發投資를 통하여 이들 技術의 應用・商品化를 積極적으로 추진하였다. OECD報告書에 의하면 日本은 主要先進資本主義國중에서도 새로운 技術과 商品을 채택하여 擴散시키는 데에 있어서 가장 成功的이었다.

技術革新과 관련하여 設備投資가 重化學工業部門에 集中的으로 이루어짐으로써 工業化가 크게 進展되고 工業에서 차지하는 重化學工業의 比重은 커졌다. 工業生産에서의 重化學工業化率은 高度成長期에 40.7%(1955年)에서 71.4%(1973年)로 上昇하였다. 高度成長過程에서 日本의 工業構造는 傳統的인 輕工業中心에서 重化學工業中心으로 결정적으로 變化하였

(31) 中村隆英(1978, p.198), 林直道 (1982, p.69).

〈表 9〉 重化學工業 比率의 推移

(單位: %)

	1955	1960	1965	1970	1973
重 化 學 工 業	40.7	55.2	54.8	66.4	71.4
鐵 鋼 業	11.3	11.8	12.6	13.8	14.8
其 他 金 屬 工 業	4.0	4.2	6.3	7.5	7.3
機 械 工 業	13.5	27.1	25.5	33.8	37.4
化 學 工 業	9.2	8.7	6.6	7.2	7.6
石 油 石 炭 製 品 工 業	2.7	3.4	3.8	4.1	4.3
輕 工 業	59.3	44.8	45.2	33.6	28.6
纖 維 工 業	24.3	18.7	13.4	9.3	8.4
食 料 品 工 業	17.4	10.7	15.4	10.6	9.8
紙 · 필 프 工 業	4.0	3.5	4.1	3.4	3.5
窯 業	3.2	2.9	4.3	3.7	3.8
其 他 工 業	10.4	9.0	8.0	6.6	3.1

資料: 日本銀行, 『經濟統計年報』, 『本邦經濟統計』.

〈表 10〉 商品別 輸出構成의 推移 (單位: 100萬달리, 괄호안은 %)

	總 額	食 料 品	纖 維 및 同製品	化 學 製 品 (A)
1950	820(100.0)	48(5.9)	399(48.7)	16(2.0)
1955	2,011(100.0)	126(6.3)	749(37.2)	103(5.1)
1960	4,055(100.0)	256(6.3)	12,23(30.2)	181(4.5)
1965	8,452(100.0)	344(4.1)	1,582(18.7)	547(6.5)
1970	19,318(100.0)	648(3.4)	2,408(12.5)	1,234(6.4)
1975	55,753(100.0)	760(1.4)	3,719 (6.7)	3,889(7.0)

	機 械 機 器 (C)	非金屬鑛物製品	金屬 및 同製品 (B)	其 他	重化學工業化率 (A + B + C)
1950	37(4.5)	159(19.4)	86(10.5)	75(9.1)	(31.8)
1955	93(4.6)	387(19.2)	249(12.4)	303(15.1)	(36.7)
1960	166(4.2)	568(14.0)	1,035(25.5)	622(15.3)	(44.0)
1965	265(3.1)	1,718(20.3)	2,975(35.2)	1,020(12.1)	(62.0)
1970	372(1.9)	3,805(19.7)	8,941(46.3)	1,909 (9.9)	(72.4)
1975	730(1.3)	12,518(22.5)	30,004(53.8)	4,135 (7.4)	(83.2)

資料: 正村公宏 (1978, p.134).

다(〈表 9〉 참조). 重化學工業의 發展에 主導되어 工業化가 크게 進展되는 속에서 輸出도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특히 輸出에서의 重化學工業化率は 36.7%(1955年)에서 83.2%(1975年)로 크게 높아졌다(〈表 10〉 참조). 적극적으로 추진된 技術革新으로 設備近代化·合理化가 진전되어 生産性이 높아지고 國際競爭力이 강화된 重化學工業產品이 輸出의 현저한 增大를 주도한 것이다.

## 2. 資本과 勞動의 供給

### 1) 資本供給

高度成長期の 높은 民間設備投資를 뒷받침한 資本은 어떻게 供給되었는가? 戰後の 復興期에 있어서 企業의 産業資本調達은 「復興金融金庫」資金, 對充資金, 特需收入을 財源으로 한 政府의 직접적인 産業金融에 크게 依存하고 있었다. 産業資金供給에 있어서의 政府의 직접적 역할은 日本開發銀行(1951年)이라든가 日本輸出入銀行(1950年) 등 國策銀行을 통해서 高度成長期에도 계속되었으며 財政投融资資金の 確保를 위한 資金運用部特別會計(1951年)와 一般會計에서의 産業投融资特別會計(1953年)가 設置되어 財政投融资도 이루어졌다. 그와 함께 高度成長기에 政府는 稅制措置에 의한 高率의 減價償却이라든가 重要물품의 免稅 등의 間接的 方法으로 企業內部的 資本蓄積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高度成長期の 필요한 設備投資資金은 企業自體가 調達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企業內部에서는 稅制措置에 의한 高率의 減價償却이라든가 高利潤의 유보 등으로 資本蓄積이 進전되고 있었다. 이와같은 企業의 自己資本이 投資資金이 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아직도 內部的 蓄積基盤이 취약한 日本의 企業은 設備投資에 필요한 資金을 自己資本만으로 充當할 수는 없었고 많은 部分을 外部資金 또는 銀行融資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高度成長의 起動力이 된 民間設備投資의 擴大에 필요한 資本供給은 銀行融資에 의해서 크게 뒷받침되었다. 高度成長期の 企業의 資本調達方式의 특징은 金融機關을 통한 「間接金融方式」이 중요하였다는 데에 있다. 證券市場이 落後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企業이 株式・社債 등 證券市場을 통하여 資本을 調達하는 「直接金融方式」은 중요하지 않았다. 資金調達の 費用面에서도 金融機關을 통한 借入이 株式社債를 통한 資金調達보다 有利하였다. <sup>(32)</sup> <表 11>은 企業의 資金調達方式을 국제적으로 比較한 것이다. 日本 企業의 경우 內

<表 11> 企業資金調達の 國際比較(1966~70年) (構成比: %)

	內 部 資 金	外 部 資 金			計
		小 計	借 入 金	有 價 證 券	
日 本	40.0	60.0	49.0	11.0	100.0
美 國	69.4	30.6	12.4	18.2	100.0
英 國	51.4	48.6	10.3	38.3	100.0
西 獨	63.1	36.9	29.6	7.3	100.0
프 랑 스	65.0	35.0	27.4	7.6	100.0

資料: 日本銀行, 『國際比較統計』.

(32) 資本調達方式에 따른 費用을 比較하면(1960年), 株式를 통한 費用이 21.3%, 社債發行利率이 8.7%인데 대해서 借入金利率은 8%였다(石田興平(1973, p.267)).

〈表 12〉各種貯蓄의 國民總支出에 대한 比率(1961년, %)

	日 本	美 國	英 國	프 랑 스	西 獨	이 테 리
減價償却	11.5	9.8	8.0	8.6	8.8	9.5
法人貯蓄	6.9	1.6	4.1	1.5	1.6	} 13.6
個人貯蓄	14.5	4.9	5.9	4.8	8.8	
政府貯蓄	9.3	1.0	△0.1	4.2	8.4	3.0
國際收支差	2.0	△0.5	0.3	△0.3	△0.8	△1.6
不 一 致	△0.7	△0.6	△0.4			
總 貯 蓄	43.6	16.2	17.9	18.8	26.8	24.5

資料：稻葉秀三・大來佐武郎・向坂正男 監修(1965, p.105).

部資金은 40%에 불과한 데 비해 借入金(49%)과 有價證券(11%)으로 구성된 外部資金이 60%나 되고 있다. 企業은 必要資金의 49%를 銀行借入으로 조달하고 있는 것이다.

間接金融에 의한 資金調達이 중요한 속에서 高度成長期의 旺盛한 資金需要는 民間企業으로 하여금 「過度한 借入」이라고 불릴 만큼 銀行에 대한 借入依存度を 높게 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銀行의 貸出은 크게 伸長하였다. 예를 들어 普通銀行의 貸出殘高의 年平均增加率은 1955~65년에 19.6%의 높은 水準이었다. 한편 높은 日本의 貯蓄率을 배경으로 預金도 크게 伸長하여 普通銀行預金殘高의 年平均增加率은 같은 기간에 18.5% 수준이었다.

企業資金需要의 상당부분을 공급한 銀行資金은 두말할 것도 없이 貯蓄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1961년에 國民總支出에 대한 總貯蓄의 比率은 43.6%였으며, 그 내용은 個人貯蓄 14.5%, 減價償却費 11.5%, 法人貯蓄 6.9%, 政府貯蓄 9.3%였다(〈表 12〉 참조). 日本의 貯蓄率은 모두 歐美諸國의 그것보다도 높은 水準에 있었다.<sup>(33)</sup>

그러나 銀行貸付는 個人的 預金만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銀行은 高度成長期의 企業의 旺盛한 資金需要를 預金만을 가지고 充足시킬 수는 없었으며, 不足한 資金은 日本銀行으로부터의 借入에 依存하였다. 즉 銀行은 所有어음을 再割引함으로써 供給받은 通貨를 企業에 貸付하고 日銀에의 返済期限이 오면 券市場에서 조달한 資金으로 그것을 返済하였다.<sup>(34)</sup>

이러한 金融構造의 중심에는 都市銀行이 있었다. 高度成長期에 大企業의 資金需要가 都市銀行으로 偏重되는 속에서 自己資金만으로는 그에 응할 수 없었던 都銀은 貸付資金의 부

(33) 日本에서 貯蓄率이 높은 理由로는 i) 높은 成長에 따른 所得증대, ii) 臨時收入이라든가 農外所得 등 보너스制度的 普及, iii) 社會保障制度的 落後性, iv) 貯蓄을 選好하는 國民性 등이指摘되고 있다.(黑坂佳央・浜田宏一(1985, pp.115-9) 참조).

(34) 石田興平(1973, pp.270-2).



죽을 日本銀行으로부터 공급받았다. 高度成長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金利는 政策的으로 低水準에 유지되었고, 1960年代 중엽까지는 均衡財政政策이 추구되는 속에서 日本銀行은 都銀에의 貸付를 통해서 成長에 필요한 通貨를 공급하였다. 都銀은 어음의 再割引을 통해서 日本銀行으로부터 成長通貨를 공급받았고 그것을 企業에 적극적으로 貸付하였다. 都銀은 自身の 資金能力을 초과한 貸付=「오버론」을 하였다. 都銀은 日銀의 「窓口指導」에 의한 信用割當을 통해서 重化學工業部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資金을 공급하였다.

한편 都市銀行은 資金不足상태에서 短期資産을 冪市場에서 조달하였다. 冪市場에의 資金供給者는 地方銀行을 비롯한 기타 金融機關이었다. 기타 金融機關은 全國的으로 零細貯蓄까지 預金으로 흡수하여 企業에 貸付하는 한편 餘裕資金을 冪市場에 공급하였다. 低金利政策이 추구되는 속에서 冪市場金利는 自由市場機構에 의해서 決定되었고 都銀의 旺盛한 冪資金需要를 배경으로 그것은 高水準으로 유지되었다.

大企業의 資金調達이 都市銀行을 통한 間接金融方式으로 이루어지는 속에서 銀行과 企業의 系列關係는 강화되었다. 이러한 系列關係속에서 大企業은 규모확장을 위한 投資競争을 하였고 銀行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貸出競争을 하게 되었다.<sup>(35)</sup> 「投資가 投資를 부른다」는 高度成長期の 활발한 設備投資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그속에서 都市銀行을 중심으로 하는 融資集中機構가 형성되었다. 都市銀行은 信託銀行, 保險會社 등 系列關係에 들어있는 地方銀行, 相互銀行信用金庫, 信用組合 등 많은 金融機關의 餘裕資金을 冪市場이나 기타 經路를 동원해서 大企業으로 공급하였다. 都市銀行 및 系列關係에 있는 金融機關은 株式 및 社債의 保有 또는 直接貸付를 통해서 企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속에서 銀行은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하였고 企業은 경쟁적으로 投資活動을 하였다.

## 2) 勞動供給

日本은 전통적으로 勞動力 過剩狀態에 있었으며 그것은 農村과 都市의 中小零細企業에 풀(pool)이 되어 日本經濟에 특징적인 二重構造의 기반이 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農村人口는 戰前에는 줄곧 550萬戶에 1,400만명이라고 말해져왔으나 그것이 1945~50년에는 海外로부터의 귀환과 破壞된 都市로부터의 流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증가하였고 都市의 企業들도 과잉고용상태에 있어 1955年경에도 潛在失業者數는 5~6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勞動力過剩은 日本의 賃金水準을 낮게하였을 뿐만 아니라 企業規模別 賃金隔差, 終身雇傭制, 年功賃金制, 企業別 組合組織 등 日本의 勞動市場의 특징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35) 系列融資에 대해서는 石田與平(1973, pp.274-5) 참조.

〈表 13〉 勞働市場의 動向

	(1) 職業安定所의 一般求人		(2) 中卒就業者中의 第一次産業就業率	(3) 新規學卒者의 求人倍率 <sup>3)</sup>		(4) 農林漁家勞働力의 流出		
	求人倍率 <sup>1)</sup>	充足率 <sup>2)</sup>		中學校	高等學校	流出者數	그중 20歲者 以上의	그중 經營者의 合計
	倍	%	%	倍	倍	千人	千人	千人
1955	0.22	53.4	31.9	1.1	0.7	—	—	—
1956	0.33	43.7	26.6	1.0	0.8	—	—	—
1957	0.39	40.3	21.8	1.2	1.1	—	—	—
1958	0.32	41.9	20.0	1.2	1.1	514.5	125.9	78.6
1959	0.44	34.8	17.6	1.2	1.1	622.8	176.2	114.6
1960	0.59	29.2	13.8	1.9	1.5	689.0	208.4	143.0
1961	0.74	23.3	9.9	2.7	2.0	746.7	265.0	181.1
1962	0.68	22.0	9.7	2.9	2.7	859.1	246.9	193.4
1963	0.70	18.3	9.8	2.6	2.7	933.8	313.8	264.6
1964	0.80	15.7	8.4	3.6	4.0	890.1	303.5	251.0
1965	0.64	18.6	7.4	3.7	3.5	850.2	242.4	217.4
1970	1.41	10.5	5.4	5.8	7.1	792.9	302.7	725.8

1950年代 前半의 數字는 다음과 같다.

	1950	1951	1952	1953	1954
中卒就業者의 第1次産業就業率	61.5	52.4	48.4	36.1	33.1
中卒者의 求人倍率	0.6	0.8	0.9	1.1	1.2
高卒者의 求人倍率	—	0.5	0.5	0.7	0.7

資料：中村隆英(1978, p.291).

註：1) 有效求人數÷有效求者數. 2) 職求職件數÷求人數. 3) 求人數÷求職者數.

되어왔다.

그러나 高度成長過程에서 就業機會도 크게 증대되어 失業率은 低下하고 1960年代初를 전환점으로 해서 勞働力은 過剩狀態에서 不足狀態로 전환되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人口壓力이 經濟成長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왔으나 그후부터는 勞働力不足으로 말미암아 成長이 둔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게 되었다. 말하자면, 高度成長은 과잉이 우려되던 풍부한 勞働力供給에 의해 크게 뒷받침되었던 것이다. 技術革新投資를 기축으로 한 높은 경제성장과정에서 그에 대응한 勞働力增加가 요청되었을 뿐만 아니라 良質의 勞働力이 필요하였다. 日本은 良質의 값싼 勞働力을 풍부히 공급할 수 있었다. 良質의 勞働力供給은 日本의 높은 教育普及率과 긴 義務教育年限(9年) 등 教育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教育을 통한 勞働力의 質的 向上이 技術革新에 따라 증대하는 良質의 勞働力 需要를 충족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高度成長過程에서 就業者數는 1950~70년에 약 4,200만명에서 5,100만으로 23.7%나 증가하였다. 이에 대해서 總人口는 같은 기간에 약 8,900만명에서 1억 400만명으로 16.1%

증가하여 人口增加率보다 就業者數의 增加率이 훨씬 높았다. 이러한 속에서 生産年齡(15세 이상) 人口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에 약 5,500만명에서 7,200만명으로 30.8%나 증가하여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61.2%에서 68.9%로 높아졌다.<sup>(36)</sup> 즉 人口의 증가를 앞지른 就業者數의 큰 증가는 生産年齡人口의 큰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와 같은 유리한 人口年齡構造에도 불구하고 就業者數의 급증으로 日本의 勞動市場은 1960年代初를 轉換點으로 勞動力過剩에서 勞動力不足으로 전환하였다. 勞動力 需給의 差異는 1950年代에 들어 이미 급속히 축소되는 과정에 있었다. <表 13>은 高度成長期의 勞動市場의 動向을 나타낸 것이다. 新規學卒者 이외의 勞動力需給關係를 나타내는 職業安定所의 求人倍率は 1965年에도 1未滿(0.64)이었으나 1950年代 後半부터 급속히 높아진 한편 充足率は 低下하기 시작하였다. 職業安定所를 통해서 볼 때 一般勞動力은 아직 과잉이면서도 점차적으로 균형점에 가까워지고 1960年代에 들어설 무렵부터는 求人側이 바라는 종류의 勞動力을 求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 한편 中卒就業者中的 1차산업 就業率は 1950年代에 들어서 급격히 低下하기 시작하여 1961년에는 9.9% 그리고 1970년에는 5.4%까지 떨어졌다. 한편 企業이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新規學卒者에 대한 求人率は 中學校의 경우에는 1955년에 이미 1을 넘고 高等學校의 경우는 1957년에 1을 넘어 供給不足狀態를 나타내게 되었다. 즉 勞動力不足은 新規學卒者로부터 시작하여 學歷層全般에 걸쳐서 진행되고 더 나아가 壯年層에 미치게 되었다.<sup>(37)</sup>

勞動力不足이 進行되는 過程에서 勞動力의 部門間 移動이 크게 이루어졌다. 勞動力이 풍부한 部門은 農村과 中小需給企業이었다. 勞動力不足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二重構造가 해소되는 과정에 있던 1960年경에도 日本의 1次産業就業者는 就業人口의 32.6%에 달하고 있었다. 한편 從事上의 地位로 보면 1962年 당시에 個人業主는 22%, 家族從事者數는 23.9%, 그리고 近代의 勞動者는 53.4%였다. 1次産業就業者(32.6%)는 美國의 6.5%에 비해서 매우 높은 비율이었으며 近代의 勞動者(53.4%)는 美國의 82.1%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만큼 日本의 勞動者는 農業과 中小企業 등의 低生産性部門에 광범히 존재하면서 經濟成長에 따라서 工業과 大企業 등의 高生産性部門으로 이동함으로써 勞動力供給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예를 들어 1960~62년의 3年間に 고용은 年平均 100만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勞動力供給의 원천은 勞動力의 自然增加와 함께 農村에서 工業으로 그리고 中小需給企業에서 大企業으로의 勞動力 移動이었다. 1958년에 50만명이었던 第1次

(36) 林直道(1982, p.95).

(37) 中村隆英(1978, pp.291-2).

産業으로부터의 勞動力流出은 1960년에는 약 70만명 그리고 1963년에는 90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한편 企業間의 勞動力 移動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경우 中小零細企業에서 大企業으로의 勞動力 移動이 크게 이루어졌다. 종래 勞働의 企業間 移動은 적었고 大企業은 正規의 勞働者인 「本工」이외에 臨時工, 日雇 등 非正規勞働者를 多量으로 고용하여 왔다. 이들 非正規勞働者는 언제나 해고될 수 있고 보다 낮은 賃金으로 雇傭될 수 있었기 때문에 企業으로서의 勞動力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好況期에는 正規勞働者의 고용보다도 非正規 勞働者의 고용을 늘리고 不況期에는 그들을 解雇함으로써 景氣變動에 대한 완충장치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勞動力不足의 진전에 따라 이들 非正規勞働者는 正規勞働者로 編入되게 되었으며 賃金도 上昇하게 되었다. 그들에 대신해서 景氣變動에 대한 완충장치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은 35歲이상의 中・高年女子勞働者였다. 이들은 1960年代 후반기이후 副職, 家族從事者, 특히 時間單位勞働者로 동원되었다. 그와 함께 大企業은 中小零細企業으로부터 勞動力을 吸收하였다. (38)

大企業으로의 勞動力 移動으로 말미암아 中小企業에서의 노동력 부족문제는 심각해졌다. 이러한 조건에서 中小企業의 賃金上昇率은 大企業의 그것보다 높아지게 되어 企業間 賃金 隔差가 축소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若年勞働者의 初賃給에 대해서는 오히려 中小企業에서 높은 逆賃金隔差 現象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中小企業에서 높은 賃金支給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生産性이 向上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60年代에 들어 中小企業部門에서도 生産性向上을 위한 설비투자가 진전되었다. 그 과정에서 大企業과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구조적 특징으로서의 生産性隔差, 賃金隔差를 내용으로 하는 二重構造도 해소되게 되었다.

### 3. 經濟政策과 經濟計劃

日本經濟의 高度成長은 활발한 民間企業活動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데에 있어서 政府의 經濟政策과 經濟計劃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高度成長期에 政府가 수행한 經濟政策으로 중요한 것은 短期的 景氣調整政策이었으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政策手段은 財政・金融政策이었다.

戰後 日本의 財政은 1965년까지는 「財政法」(1947年)이 規定한 原則에 따라 엄격한 均衡基調위에서 運用되었다. 累進稅率構造를 가진 所得稅라든가 法人稅 등 直接稅중심의 稅制에 기초하여 運用된 日本의 財政에는 景氣調整機能을 가진 自動安定裝置가 制度化되어 있었

(38) 中村隆英(1978, pp.302-4).

〈表 14〉經濟計劃과 成長率

計 劃 名	策 定 時	計 劃 期 間	實 質 經 濟 成 長 率	
			計 劃	實 績
經濟自立 5個年計劃	1955年12月(鳩山內閣)	1956~60年度	5.0	9.1
新長期經濟計劃	1957年12月(岸內閣)	1958~62年度	6.5	10.1
國民所得倍增計劃	1960年12月(池田內閣)	1961~70年度	7.2	10.0
中間經濟計劃	1965年 1月(佐藤內閣)	1964~68年度	8.1	10.8
經濟社會發展計劃	1967年 3月(佐藤內閣)	1967~71年度	8.2	10.9
新經濟社會發展計劃	1970年 5月(佐藤內閣)	1970~75年度	10.6	6.3
經濟社會基本計劃	1973年 2月(田中內閣)	1973~77年度	9.4	—

資料：正村公宏(1978, p.98).

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下에서도 財政은 실제적으로는 景氣活動을 增幅시키는 측면도 있었다. 왜냐하면 財政當局이 豫算編成에 있어서 비교적 낮게 책정한 經濟成長率과 稅收가 실제로는 훨씬 커짐으로써 年度後半에는 追更豫算을 편성하여 支出을 확대하게 됨으로써 景氣를 더욱 자극하게 되고 반면에 不況期에는 稅收증가가 둔화되면 財政支出도 둔화되어 不況을 더욱 深化시키는 作用을 하였기 때문이다. 前者의 경우는 「岩戶景氣期」(1959~61年)에 그리고 後者の 경우는 「1965年不況期」에서 볼 수 있었다.

財政이 景氣變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은 「財政法」이 改正(1965年)되어 赤字公債의 發行을 통하여 追更豫算의 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게 되면서였다. 다만 1960年代後半期에는 높은 經濟成長에 따른 稅收增加로 실제로는 國債發行을 抑制하면서도 15~20%에 달하는 財政支出의 증가를 지속할 수 있었다. 1970~71年の 金融緊縮과 圓貨切上の 충격속에서 國債가 發行되고 財政支出은 그제 擴大되었다. 그러나 그후의 인플레이션과 石油危機속에서 稅收는 減少하고 國債依存率은 上昇하게 되어 不況期에도 財政支出을 抑制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財政支出은 1960年代 前半期의 대규모의 社會間接資本의 건설과 1960年代 後半期의 社會保障制度의 擴充을 뒷받침 함으로써 高度成長의 基盤을 造成하였다. (39)

財政政策과 함께 短期的 景氣調整政策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金融政策이었다. 金融政策을 통한 景氣調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은 國際收支의 움직임이었다. 景氣가 上昇하여 輸入이 증대하고 國際收支가 惡化되면, 政府·日銀은 金利를 引上한다든가 「窓口指導」를 통해서 金融을 긴축하여 景氣를 진정시켰고, 反面에 輸出이 증가하여 국제수지가 好轉되면 金利引下와 融資擴大를 통해서 景氣를 浮揚시켰다. 間接金融이 企業의 중요

(39) 中村隆英(1973, pp.269-70, p.274).

〈表 15〉 國民所得倍增計劃과 實績

	1970年度水準		伸張率(%)	
	目標	實績	目標	實績
總人口(萬人)	10,222	10,372	0.9	1.0
就業者數(萬人)	4,689	5,094	1.2	1.5
雇傭者數(萬人)	1,924	3,309	4.1	4.3
國民總生產(兆圓)	26.0	40.6	8.8	11.6
1人當國民所得(萬圓)	20.8	31.8	6.9	10.4
鑛工業生產	431.7	539.4	11.9	13.9
에너지需要(石炭, 億달리)	3.0	5.7	7.8	12.0
輸出(億달리)	80.8	202.5	10.0	16.8
輸入(億달리)	98.9	195.3	9.3	15.5

資料：香西泰(1981, p.143).

한 資本調達方式이었으므로 이와같은 金融政策은 매우 效果的이었다. 즉 日銀의 金利調整 및 「窓口指導」는 都市銀行을 통해서 企業의 投資活動에 影響을 줌으로써 景氣를 조정하는 有效한 手段으로 기능하였다. 高度成長期를 통해서 景氣調整은 기본적으로 이와같은 金融政策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한편 政府는 經濟成長을 촉진하기 위하여 經濟計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表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高度成長期에 日本에서는 7개의 經濟計劃이 수립되었다. 그 대부분은 5年計劃이었으나 內閣이 바뀌에 따라 그리고 經濟가 計劃值를 초과해서 成長함에 따라 자주 再調整되었다. 事實 高度成長期의 經濟計劃期間中 實績이 計劃值를 크게 초과하였다.

이들 經濟計劃中에서도 高度成長과의 관련에서 중요한 것은 「國民所得倍增計劃」이었다. 同計劃의 目標는 經濟規模(GNP)를 10年동안(1960~70年)에 實質價値로 倍增하고 그러기 위해서 成長率을 平均 7.8%로 한다는 것이었다. 〈表 15〉는 同計劃과 實績에 대한 主要經濟指標이다. 同計劃은 民間部門에서는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유도하고 公共部門에서는 상대적으로 落後된 社會間接資本의 확충이 指向되었다. 그리고 高度成長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教育訓練, 科學技術의 向上을 통한 人的 能力의 개발이 指向되고 成長을 통해서 二重構造 및 社會的 緊張의 緩和가 指向되었다.

同計劃은 經濟를 크게 자극하였다. 특히 民間內部에서는 同計劃의 目標에 따라 1961年의 民間設備投資는 前年度에 비해서 36.8%나 증가하였고 實質經濟成長率은 14.5%라는 기록적인 水準에 달하였다. 投資의 급격한 증가는 경기를 과열시키고 國際收支를 악화시켜 同計劃은 初年度에 벌써 調整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 日本經濟는 「中期經濟計劃」(1965年)과 「經濟社會發展計劃」(1967年)을 통해서 高度成長에 따른 不均衡을 是正하고

均衡이 잡힌 充實한 經濟社會에로의 발전을 지향하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高度成長은 지속되었다. 그 결과 「國民所得倍增計劃」에서 策定된 目標은 成長率實績에서 모두 크게 초과 달성되었다. 高度成長을 촉진하는 데에 있어서 同計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經濟計劃에 의해서 政府는 政策方向을 提示하고 企業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行動하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企業은 활발한 投資活動을 展開하였다. 뿐만 아니라 政府는 적극적으로 産業을 保護・育成하였다. 産業保護制度로서 중요한 것은 「外國爲替・外國貿易管理法」(1949年 2月)에 기초한 外貨割當制였다. 이 制度는 輸入商品에 대한 外貨割當을 통해서 輸入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國內産業을 保護할 뿐만 아니라 産業合理化와 輸出振興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 되었다. 예를 들어 貿易自由化에의 壓力이 커지는 속에서 政府는 外貨割當制를 통하여 輸入을 억제함으로써 國內産業을 保護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産業合理化를 추구하면서 産業의 國際競爭力을 높이고 自由化에 대비하였다. 실제로 日本이 貿易自由化로 나아가게 된 것은 高度成長의 최초의 局面을 거친 1960年代에 들어서였다. 또한 「外資法」(1950年)은 外國技術의 導入을 촉진하고 國內資本을 保護하는 制度였다.

이와 같은 産業의 保護・育成을 위한 諸制度를 기반으로 企業은 적극적인 投資活動을 할 수가 있었다. 企業의 設備投資競爭속에서 合理化가 진전되어 競爭力이 증진되었다. 企業의 投資活動의 결과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企業自身이 책임을 졌다. 그러나 政府는 企業으로 하여금 政府政策의 方向에 따라 行動하도록 유도하고 과당경쟁으로 企業들이 곤경에 처한다든가 손실을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行政指導」를 하였다. 그리고 結果적으로 나타난 損失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상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인 救濟措置를 강구하였다. 「獨禁法」改正(1953年)으로 不況카르텔・合理化카르텔이 許容되어 그것은 企業集團의 形成과 함께 企業으로 하여금 보다 安定的인 기반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條件에서 企業은 다른 他企業을 앞서기 위해서 競爭의으로 設備投資를 擴大하고, 合理化를 추구하였다.<sup>(40)</sup>

産業保護・育成政策과 「產政複合體」・「日本株式會社」라고 불리워지는 産業企業과 政府와의 밀접한 關係를 통해서 産業合理化가 추진되었고 企業은 成長하였다. 그속에서 高度成長이 이루어졌다.

#### IV. 結 語

高度成長에 의해서 日本經濟는 量的으로 크게 擴大되고 質的으로 高度化되었다. 量的 側面을 보면 우선 國民總生産은 1970年기준으로 1955~73년에 17조圓에서 91조圓으로 5.2倍

(40) 中村隆英(1978, p.205).

증가하여 資本主義世界에서 美國에 이어 第2位가 되었다. 「經濟大國」이 된 것이다. 同期間에 1人當 國民所得도 19만圓에서 84만圓으로 약 4.3倍 증가하였다. 輸出은 같은 期間에 20억달러에서 360억달러로 약 18倍 증가하여 世界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4%(1962年)에서 7%(1975年)로 커졌다. 특히 1968年 이후부터는 國際收支黑字基調가 定着되고 黑字幅이 擴大되어 外貨保有는 크게 增加하였다. 그것을 기초로 日本經濟는 1970年代에 들어 적극적으로 對外資本進出을 하게 되었다. 그속에서 日本經濟는 世界經濟와의 關係에서 影響을 받는 地位에서 影響을 주는 地位로 變化하였다.

質的인 측면을 보면 우선 產業構造가 크게 變化하였다. 各產業의 構成比를 보면 1955~70년에 第1次產業은 19.9%에서 5.9%로 크게 低下한 반면에 第2次產業은 32.2%에서 38.5%로, 그리고 第3次產業은 46.9%에서 56.2%로 각각 上昇하였다. 특히 工業에서의 重化學工業化率은 1955~73년에 40.7%에서 71.4%로 크게 上昇하였다. 그속에서 日本의 工業은 高度의 生産力水準에 도달하였다. 높은 生産力에 기초하여 大量으로 공급되는 各種 家電製品과 자동차 등 다양한 내구소비재는 「流通革命」의 進展과 함께 「消費革命」을 낳고 「高度大衆消費時代」를 出現시켰다.

日本經濟의 오늘날의 水準은 기본적으로 高度成長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한 意味에서 高度成長期는 戰後 日本의 經濟過程에서의 하나의 劃期였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 國內外的으로 高度成長을 制約하는 條件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世界經濟의 環境이 變化하였다. 첫째로 IMF體制가 무너지게 되었다. 越南戰爭을 계기로 進展된 世界的 인플레이, 달러貨의 平價切下, 달러貨에 대한 不安에서 오는 諸外國의 保有달러의 金과의 交換要求, 金·外換準備의 커다란 減少라는 일련의 通貨위기에 직면한 美國은 달러貨 防衛를 위한 긴급경제정책으로 10%의 輸入課徵金을 부과함과 동시에 달러·金交換停止를 단행하고 各國通貨의 調整을 요구하였다. 이에 새로운 通貨조정인 이 루어짐으로써(1971年 12月) 스미소니언 體制가 成立하였다. 그러나 美國의 貿易收支赤字는 계속 확대되는 한편 日本과 西獨의 貿易收支黑字가 증가하는 속에서 달러貨에 대한 不安은 계속되어 또 다시 國際通貨危機가 급진진되었다. 이에 固定換率制는 變動換率制로 移行(1973年 2月)됨으로써 IMF體制는 무너지게 되었다.

둘째로 GATT의 自由貿易體制가 動搖하고 先進資本主義諸國에서의 保護主義傾向이 농후해졌다. 특히 日本의 對美貿易收支는 13억 달러의 赤字(1969年)에서 反轉하여 1970년에는 32억 달러, 1972년에는 59억 달러의 黑字가 되었다. 이러한 속에서 兩國間的 「貿易摩擦」이 격화되었고 美國의 保護主義的 傾向을 助長하였다.



세계는 發展途上國에서의 資源내소날리즘의 대두이다. 先進資本主義諸國의 높은 經濟成長은 發展途上國의 값싼 資源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1960年代를 통하여 發展途上國의 經濟도 높은 成長을 하였다. 그러나 兩地域間의 經濟的 隔差는 오히려 擴大되었다. 發展途上國들은 先進資本主義와의 經濟關係에서 나타나는 不利한 地位를 改善할 수 있는 「新經濟秩序」의 수립을 要求하게 되고, 保有資源을 有力한 무기로 활용하려 하였다. 石油價格의 대폭적인 引上(1973年)은 그 단적인 表現이었다. 「石油危機」는 값싼 石油供給에 의존하여 高度成長을 한 資本主義經濟에 대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한편 高度成長은 國內的으로 심각한 不作用을 초래하였고 그것이 高度成長의 基盤을 잠식하였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은 인플레이의 進展이다. 1971年의 달러 危機와 圓貨切上이라는 對外貿易環境의 악화에 따른 不景氣를 막기 위해 취해졌던 1971年과 1972年의 超金融緩和은 投資支出의 增加보다는 大企業들의 土地投機와 株式投資, 商品投機를 통해 인플레이로 이어졌다. 이것은 곧이어 밀어닥친 石油價格의 대폭인상과 맞물려 엄청난 인플레이를 가져왔고 政府는 不景氣임에도 불구하고 긴축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 「戰後最大의 不況」(1973~74年) 속에서 企業의 投資意欲은 크게 약화되었다.

또한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한 高度成長은 産業公害의 문제를 심각하게 하였다. 이에 企業의 公害防止負擔은 커졌다. 公害防止를 위한 投資는 企業의 生産擴大와 直結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投資의 效率을 떨어뜨렸다.<sup>(41)</sup> 한편 高度成長過程에서 나타난 産業・人口의 大都市集中으로 말미암아 大都市의 「過密」 그리고 地方의 「過疎」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大都市를 비롯한 都市에서는 심한 交通難과 住宅難을 가져왔다. 地價는 폭등하여 土地投機를 낳게 하였으며 勞働者 및 俸給生活者의 生活은 압박을 받았다. 社會保障은 아직도 相對的으로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다. 都市問題의 解決과 社會保障의 增進을 위하여 中央政府 및 地方政府의 支出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背景에서 成長至上主義는 批判을 받게 되었고<sup>(42)</sup> 國內外的인 均衡・調和가 要求되었다. 日本經濟는 史上最初의 마이너스成長(1974年)을 기록한 「戰後最大의 不況」을 거쳐 成長率 5~6%의 「中成長期」로 접어들게 되었다.

(41) 必要資本係數는 3代의(1960年代)에서 4.4(1970~73年) 그리고 6.7(1973~79年)으로 높아졌다, (黑坂佳央・浜田宏一(1985, p.30)).

(42) 穴戶壽雄(1977, pp.15~21) 참조.

## 參 考 文 獻

- 金宗炫, 「韓國에 있어서의 日本經濟研究」, 『經濟論集』, 第27卷 第1號, 1988年 3月.  
經濟企劃廳, 『經濟白書』, 1962.
- 古川哲, 「現代日本の土地所有と地代の問題」, 『現代と思想』, No. 30, 1977.
- 橋本壽郎, 「戦後高度成長研究の成果と問題點」, 『社會經濟史學』, Vol. 52, No. 2, 1986.
- 宮崎義一, 『日本經濟の構造と行動(上, 下)』, 筑摩書房, 1985.  
———, 『戦後日本の經濟機構』, 新評論社, 1966.
- 宮崎犀一, 奥村茂次・森田桐郎 編, 『近代國際經濟要覽』, 1981.
- 宮下武平 編, 『日本產業論』, 1971.
- 金森久雄・香西泰 編, 『日本經濟讀本(第9版)』, 東洋經濟新報社, 1982.
- 内田忠夫, 『日本經濟論』, 東京大學出版會, 1987.
- 稻葉秀三・大來佐武郎・向坂正界 監修, 『日本經濟の現状と展望(講座/日本經濟 I)』, 日本評論社, 1965.
- 穴戶壽雄, 『日本經濟の成長力』, ダイヤモンド社, 1977.
- 大島清・榎本正敏, 『戦後日本の經濟過程—資本蓄積と景氣變動—』, 東京大學出版會, 1968.
- 大川一司, 『日本經濟の構造—歴史的觀點から—』, 勁草書房, 1974.
- 馬場廣二, 「戦前戦後の世界經濟—日本賠償問題と関連して—」, 『戦後改革 2—國際環境』, 東京大學 社會科學研究所, 1974.
- 飯田經夫 他共著, 『現代日本經濟史(上, 下)』, 筑摩書房, 1976.
- 山崎隆三 編, 『現代日本經濟史』, 有斐閣, 1985.
- 山田盛太郎, 「農地改革の歴史的意義」, 『戦後日本經濟の諸問題』, 東京大學 經濟學部, 1949.
- 森口親司, 『日本經濟論』, 創文社, 1988.
- 上野裕也, 『競争と規制—現代の産業組織』, 東洋經濟新報社, 1987.
- 石田興平, 『日本經濟の發展』, ミネルヴァ書房, 1973.
- 小宮隆太郎, 『現代日本經濟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5.  
———, 『現代日本經濟』, 東京大學出版會, 1988.
- 小島恒久, 『日本資本主義論争史』, 1976.
- 小林良彰, 『昭和經濟史—激動50年の考察』, ソーテック社, 1975.

- 松井清, 『日本貿易入門』, 1962.
- 安藤良雄 編, 『近代日本經濟史要覽(第2版)』, 東京大學出版會, 1979.
- 岩田規久男・石川經夫 編, 『日本經濟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88.
- 楊月克己・石崎昭彦 編, 『現代世界經濟論』, 1976.
- エコノミスト編集部編, 『証言・高度成長期の日本(下)』, 毎日新聞社, 1984.
- 奥村廣, 『法人資本主義』, 1984.
- \_\_\_\_\_, 「財閥の解體と再編成」, 川合一郎 共編, 『講座日本資本主義達史論』, 1969.
- 有澤廣巳 監修, 『昭和經濟史(上, 下)』, 日本經濟新聞社, 1980.
- 二瓶敏, 「戦後日本資本主義の諸劃期」, 『日本資本主義の展開過程(講座今日の日本資本主義第二卷)』, 大月書店, 1981.
- 林直道, 『現代の日本經濟』, 1982.
- 藏野正三郎, 「戦後日本の國際收支—第一部 圓レト360圓高論—」, 『經濟研究』, 第39卷 第2號, April 1988.
- 正村公宏, 『日本經濟論』, 東洋經濟新報社, 1978.
- \_\_\_\_\_, 『戦後日本資本主義史』, 日本評論社, 1983.
- 篠原三代平, 『日本經濟の成長と循環』, 創文社, 1963.
- \_\_\_\_\_, 『經濟成長の構造—轉機日本經濟の分析—』, 國元書房, 1964.
- \_\_\_\_\_, 『日本經濟論』, 青林書院新社, 1965.
- 佐和隆光, 『高度成長—「理念」と政策の同時代史—』, NHK ブックス 465, 日本放送出版協會, 1984.
- 中山伊知郎・篠原三代平 編, 『日本經濟の發展—工業代と未來—(講座日本の將來 4)』, 潮出版社, 1969.
- 中村隆英, 『日本經濟—その成長と構造(第2版)』, 東京大學出版會, 1978.
- \_\_\_\_\_, 『戦後日本經濟—成長と循環』, 1968.
- \_\_\_\_\_, 『昭和經濟史』, 岩波セミナーブックス 17, 1986.
- 中村靜治, 『戦後日本の技術革新』, 1979.
- 川合一郎 他共編, 『講座日本資本主義發達史論 IV』, 日本評論社, 1969.
- 下村治, 『日本經濟成長論』,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62.
- H. パトリック・H. ロゾフスキー編, 金森久雄監譯, 『日本經濟の發展』, アジアの巨人, 日本 I, 日本經濟新聞社, 1978.

- 鶴田浦彦, 「高度經濟成長の矛盾と歸結」, 『日本資本主義の展開過程』, 大月書店, 1981.
- 香西泰, 『高度成長の時代—現代日本經濟史ノート』, 日本評論社, 1981.
- 花田仁伍, 「現代日本農業の起點—農地改革」, 川合一郎 他共編, 『講座日本資本主義發達史論Ⅳ』, 日本評論社, 1969.
- 黒坂佳央・浜田宏一, *Macro & Japanese Economy*, 1985.
- Maddison, A., *Economic Growth in the West: Comparative Experience in Europe and North America*, New York, 1964.
- Postan, M.M., *An Economic History of Western Europe 1945~1964*, London, 1967.